곡성 허남석 후보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경찰, 차량 위치추적 조회 확인

추적기 구매자 3명 체포영장

지난 1일 곡성에서 발생한 '군수 예비후보 차량의 위치추적기 부착사건'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문제의 위치추적기 구매자 3명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서는 한편, 누군가 인터넷을 통해 조 후보의 차량 위치를 조회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곡성경찰은 6일 조 후보 차량에 부착된 위치추적기의 구매자와 구매처, 구매시점 등을 밝혀내고 이들이 추적기를 구입한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문제의 추적기는 영광에 사는 장모(31)씨와 장씨의 동생(28), 장씨의 외사촌(22) 등 3명이 사건 발생 닷새 전인 지난달 26일 대전의 한 전자상가에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장씨 등이 서울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장씨 등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서울 경찰과 함께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또 지난달 29일과 30일 허 후보 측 사무실이 있는 곡성읍내 한 건물과 곡성읍, 옥과면의 PC방 등 3곳에서 차량 위치조회 기록을 확인하고 지난 5일 허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한 컴퓨터와 노트북 등의 자료 분석을 통해 차량 조회가 실제 허 후보 측 사무실에서 이뤄졌는지와 접속자가 누구인지를 파악중이다. 현재 허 후보의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에는 다른 사무실 2곳도 입주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양측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곡성군의 경우 군수 출마예정자가 조 후보와 허 후보 단 2명이기 때문이다.

조 후보 측 관계자는 "후보가 둘 뿐인 상황에서 상대 후보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냐"며 "허 후보가 우리 측의 자작극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할 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허 후보가 경찰서장 출신이라 그런지 경찰의 수사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허 후보에 대한 '감싸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다"며 경찰수사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허 후보 측은 자신들의 연루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허 후보는 "지난달 30일 밤 나와 친분이 있는 임모(55)씨가 선거 사무실로 낯선 사람을 데려와 '도청 점검을 한다'며 우리 측 선거 관계자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컴퓨터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치추적 사이트에 접속한 흔적은 그날 발생한 일 같다"고 해명했다.

또 허 후보는 "우리 측 소행이라면 위치추적기를 그렇게 눈에 띄는 곳에 엉성하게 설치하고, 우리 사무실 컴퓨터로 위치추적을 시도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당초 경찰이 문제의 추적기 가입 신청자로 지목한 임씨는 지난 3일 곡성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이번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곡성=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할아버지·할머니 사랑해요" 어버이날을 앞두고 광주 유창 어린이집 원생들이 6일 광주시 북구 운암1동 벽산블루밍 1단지 경로당에서 할아버지·할머니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후 재롱을 부리고 있다. 이날 행사는 운암1동 주민센터 주최로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학생 학자금 연체 급증

광주 연체액 1년 새 40% 늘어

광주지역에서 대출 학자금을 제 때에 갚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특히 학자금 대출자 수는 감소했으나 경제난 속에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학생들은 되레 증가해 광주지역 학자금 연체액은 1년 사이 무려 40%나 증가했다.

6일 '등록금 인하,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광주전남정책포럼'에 따르면 2009년 광주지역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은 1만9036명으로 2008년 2만286명에 비해 1000명 이상 줄었다.

그러나 총 연체액은 85억원으로 전년 61억원보다 무려 24억원(40%)이나 늘어났다. 또한 학자금 연체율도 3.8%로 전년 3.5%보다 상승했고, 이는 전국 평균(3.3%)을 웃도는 수치다.

전국의 대출 학자금 연체액은 1759억원(2008년)→2394억원(2009년)으로 36% 증가했다.

이 같은 연체액 증가에 대해 광주전남정책포럼은 2009년의 학자금 대출 금리가 5.8%로 국고채 금리(4.5%)보다 월등히 높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2010년 학자금 대출금리는 5.7%로 역시 국고채 대출금리(4%) 보다 크게 높았다.

광주전남정책포럼 이승철 팀장은 "학자금을 제 때 갚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광주지역에서만 총 6만7000명에 달한다"면서 "연체자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살인적인 등록금에 있는 만큼 정부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초고액의 등록금을 낮추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보성 초등교사 제자 성추행 알고보니 어린이들 '거짓말'

검찰, 무혐의 처분

지난해 보성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교사의 제자 성추행 논란은 어린이들의 거짓 진술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조주태)은 6일 보성의 초등학생 2명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담임교사 김모씨에 대해 성폭력범죄 여부를 놓고 수사를 벌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피해를 호소한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거짓말 탐지기 등을 동원해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 수사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인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성추행 장소가 투명한 유리를 통해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고, 학생들의 진술과 비슷한 조건으로 당시 상황을 재현해봐도 진술내용 중 상당 부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일 보성 모 초등학교에 임용된 뒤 같은달 25일과 28일 학교 교재연구실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5학년 학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지만 조사를 받는 8개월간 너무도 큰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취직 미끼 돈 뜯은 60대 구속

광주북부경찰은 6일 공기업 취직 알선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양돈업자 주모(63)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주씨는 지난해 8월 21일 평소 알고 지내던 최모(56)씨에게 접근한 뒤 "아들을 공기업에 취직 시켜주겠다"고 속여 2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 기자 golee@

거짓말탐지기에 두 손 든 주부들

쌍나팔

○…몇달 전 같이 식사하던 일행의 돈을 훔친 뒤 발뺌하던 주부들이 거짓말탐지기 조사 끝에 범행을 시인.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장모(여·40·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광주시 동구 금남로3가 한 레스토랑에서 함께 식사하던 박모(여·46·광주시 동구 산수동)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박씨의 손가방에서 70만원을 훔친 혐의.

○…장씨 등은 훔친 돈을 쇼핑에 다 쓴 뒤 가족에게도 사실을 숨겼다가 경찰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해 나타난 거짓반응을 근거로 추궁하자 인정.

○…장씨는 경찰에서 "순간적인 유혹을 참지못하고 돈봉투에 손을 댔는데, 가족들에게 창피해서 말할 수 없었다"고 뒤늦게 후회.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전교조 교사 명단공개 파문 확산

부산·경남 학부모단체도

한나라당 일부 국회의원에 이어 부산·울산·경남지역 일부 학부모 단체도 교원단체 가입 교사 명단을 공개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부산·울산·경남협의회는 6일 학사모 부산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5개 교원단체에 가입한 부산지역 교사 1만504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교사들의 다양한 정보를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하고 학부모의 알권리는 더욱 존중받아야 한다"고 명단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지난 5일 전교조 교사 비율이 높은 고교일수록 수능성적이 떨어진다는 분석결과를 발표, 교원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 의원은 2009학년도 일반계고 수능성적을 분석할 결과, 전교조 가입률이 5%미만인 학교는 1·2등급 비율이 14.6%, 40% 이상인 학교는 1·2등급 비율이 7.8%로, 격차는 6.8%포인트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6일 "전교조 가입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광주가 수능 성적 전국 1위를 6년째 유지하고 있다"면서 "광주의 사례만 보더라도 전교조 가입 비율과 수능성적의 상관 관계가 없다는 점이 입증된다"고 반박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교조·전공노 273명 기소

정당에 불법 가입 후원금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6일 불법으로 정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83명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공무원 90명 등 모두 27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전교조와 전공노는 "조합원들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재판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알몸사진 공개" 여자친구 협박 대학생 검거

광주북부경찰

광주북부경찰은 6일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이모(18·전남 모 대학 1년)군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 4일 오후 6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 인근에서 전 여자친구 정모(18)양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에 저장된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현금 5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